

13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어 각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의 밀그램 교수의 실험 ‘아이히만 실험’에서 한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이히만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양한 암시를 던져 준다. 우선 관료제다. 관료제라 하면 관청등의 기관에서 채택한 조직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급자 아래에 트리형으로 인간을 배치하고 권한과 규칙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는 것이 관료제라 정의한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 조직이 관료제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밀그램의 실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주체자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제심과 양심의 작용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 현상은 아주 위험하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이나 자제심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면, 조직이 비대한 만큼 악행의 규모 또한 비대화되기 때문이다.

- 밀그램 교수의 실험 결과는 사람이 집단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야말로 그 집단이 지닌 양심이나 자제심이 가동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컴플라이언스(조직 구성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적,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체제)위반이 속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밀그램의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더욱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인간은 권위에 놀랄 정도로 취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권위에 대항하는 약간의 반대 의견 또는 양심과 자제심을 부추기는 작은 도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간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조직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맨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 현대와 같이 분업이 표준화된 사회에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 한 채 거대한 악행에 가담하고 있기 쉽다. 수많은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은폐와 위장은 바로 분업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체계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눈 앞의 일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짚어 보고 공간적, 시간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무언가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용기를 내어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자기 의견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